

“있을 것 있고 없을 것 없는 세상을”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

윤구병 지음
도서출판 보리 / 1만3천원



◇2월 24일 회갑을 맞아 변산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한 윤구병(왼쪽에서 두번째) 씨.



기 삼광과도 같은 직관으로 단칼에 무명(無明)을 날린다.”

송광사 행자 출신의 자칭 ‘농부’ 윤구병(60)씨가 낸 철학책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보리)에 나오는 알송달송한 화두 풀이다.

1996년, 53세의 늦은 나이에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전북변산에서 농사 짓고 공동체 학교를 꾸리는 철학자 윤구병씨. 그가 대학을 버리고 생태공동체 건설에 나서게 한 실천적 문제의식을 존재론적으로 조망한 이 책은 책 표지 안에 쓴 말 그대로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쓴 윤구병식 존재론 이야기’다.

그의 전공이었던 서양 고대 철학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존재론을 풀이하는 이 책은 강의실에서 학

생들과 묻고 답하듯이 풀이하는 글을 통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보여준다. ‘존재와 운동’ ‘하나와 여럿’ 등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과 구수한 어법으로 구사하는 책 내용은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유전무죄나 무전유죄니 하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양하게 인용되는 등 지루하지 않게 철학을 접할 수 있다.

제논이나 파르메니데스 뿐 아니라 플라톤과 아

할 것들이 없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긴밀하게 연관 맺고 있는 문화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은 반쪽이다. ‘있음’ ‘없음’에 이어 ‘함’ ‘됨’ 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다루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아마도 기억없는 다음 책에서 그 내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변산공동체를 한번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책이었던 그의 아버지, 한국전쟁 과정에서 잃어버린 6명의 형, 소주한병과 오징어 튀김을 뒤주머니에 넣고 다닌 고등학교, 서른네살에 출가해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 임신한 아내가 아이 손잡고 찾아오자 하산한 일, 그리고 교수직 사퇴...

철학교수들을 대표해 글을 실은 이정호 방송대 교수는 “존재론을 강단의 것이 아닌 현실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의 통찰에 주목해 후학들이 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적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서양고대철학 중심 존재론 치밀하게 탐구

자신의 경험 불교적 사유로 구수하게

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기독교형이상학의 여러 존재론의 사고 틀은 윤구병식으로 해설되며, 그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를 엮보게 하는 시간과 공간, 유한과 무한, 실체와 현상, 좋음과 나쁨의 문제가 언급된다.

윤구병씨의 철학은 결국 ‘있음/없음’의 존재론을 징검다리로서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이라는 실천론으로 넘어간다. 거기서 그가 꿈꾸는 목표는 ‘역암 작위 전쟁 이기심 탐욕 증오처럼 없어야

다는 불교 경전과 선(禪)의 세계에서 문자 뒤의 진리를 찾고, 그것을 빼어난 우리말로 옮기는 열력을 해 온 이원섭 시인. 그는 대선배인 중국을 대표하는 시성 두보와 이백을 이렇게 본다.

“이백을 보면 도처에서 꿈을 발견하고는 그 꿈에 시의 날개를 달아 무지개처럼 찬란히 펼쳐보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설사 현실적으로는 실의에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꿈은 농도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은 점에 끌리지요. 두보는 고통과 번뇌가 키워낸 중국문학사의 시성이지요. 시대와의 불화 탓인지 삶과의 불화 탓인지 잘 모르지만, 그는 고통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시를 쏟아냈지요.”

김재경 기자

‘두보시선’
‘이백시선’
이원섭 역해
현암사 / 1만3천원, 1만2천원



중국 두 詩聖의 생애·시 세계

老시인의 한시 해석... 은은한 맛과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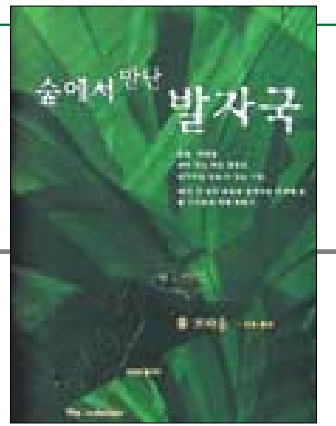
도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두보와 이백의 선적인 일생, 시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노

시인의 연륜에서 우러난 한시 해석의 은은한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분업인 시 창작 보



‘숲에서 만난 발자국’

툼 브라운 지음 / 김훈 옮김
황금가지 / 1만3천5백원



20여년 산에서의 야생체험기

우선 이 책 <숲에서 만난 발자국>을, 일곱 살이던 때부터 20여년을 산 속에서 살아온 톼 브라운의 야생체험기라고 해두자. 나는 이 책에 흐르는 기조가 소중한 무엇의 상실이라고 읽었는데, 우리가 숲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우리에게 숲은 도시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사물이다. 그것은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잠깐의 쉼을 위한 레저용 사물이다. 아니면 애초부터 밭기를 두려워하도록 이미지화된 사물이거나, 군사작전 용도의 출입금지 지역이다. 혹은 개발용의 사물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을 도로용으로 삼는 계획과 지리산의 계곡을 수장시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렇고, 백두대간을 9km마다 잘라낸 도로가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숲은 곧 도량(道場)이라는 불교의 전통이 있다. 출가를 입산(入山)이라고 했듯, 불교의 전통에서 산은 수행적인 도량의 대접을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불교의 전통은 위태롭지만 꽤 보편적이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산을 오르다고 하지 않고 유산(遊山)이라고 했다. 산에 대한 겸허함이다.

우리의 전통에서 보면,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큰 산 ‘파인 배런즈’는 야생성의 산이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보다 훨씬 더 넓으며, 소나무와 덩굴로 덮여 있어 도로에서 백여 미터만 벗어나도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아찔한 곳이다. 그런데, 동물 발자국 추적자(The tracker, 이 책의 원 제목인 톼 브라운에게 파인 배런즈는 “자취들과 그러한 자취를 너머에 존재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도량으로서의 공간이 된다.

아무리 험악한 산일지라도 사람과 산이 하나됨으로써 비로소 도량이 된다. 동물의 발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의 촉감을 통해 익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동물이 자신이 사는 동굴 속에서 안심하고 기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풍경의 일부가 되어 한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많은 행위의 흔적이 갖든 자취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는 경지에 이른다.

“학교는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할아버지는 내게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한 아파치 인디

언 할아버지인 ‘뒤를 밟는 늑대’의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추위는 네 형제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바람을 적으로 취급해왔다.” 이 말은 화두에 다름 아니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으로 확인한 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자연과 하나되는 절정의 순간의 기록이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된다면 자연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래서 나는 추위에 대해 저항하기를 그쳤다.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인지, 최근 몇 년 사이 숲 속은 나무, 산에 대한 책의 출판이 활발하다. 서점의 한 서가를 차지할 정도이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발자국>도 굳이 분류한다면 그런 류에 속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연구의 결과 또는 관찰의 기록이 아닌, “마침내는 그 자취들이 주는 인상을 통해 그 동물을 거의 손으로 감촉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 안에 떠오른다”고 서술할 정도의 온전한 체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산의 온전한 체험은 도시와 도시가 상징하는 그

야생성·도량 기능 해체 가속화 경고

물에 포섭되어 숲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삶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충분히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실시한 ‘불자들의 환경 인식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의 환경의식이 그 위의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편성된 환경교육을 받는데도 환경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친숙해지는 체험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경험한다 해도 야생성을 상실한 도심공원에서의 경험이거나 주말의 레저용이 고작이다.

산과 산의 야생성과 도량으로서의 산, 이 셋의 해체가 그치는 커녕 더욱 가속화하는 이 때에 이 책의 지은이인 톼 브라운의 자조적인 경고록 듣는 심정은 허허롭다.

“그 비버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 일대가 모두 오염되고 난 후엔야야 비로소 리와 내가 느꼈던 그 혹심한 무력감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지만 그건 앞으로 꽤 많은 시일이 흐른 뒤의 일이 될 것이다.”

■정성운 /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숲에서 만난 발자국>은 <시선 동물기>를 뒤따라, 시선의 이야기 주인공이 동물인 것과 달리, 이 책의 주인공은 여덟 살 소년 저자 톼 브라운이다. 소년은 자연의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을 아홉살 인디언 할아버지에게 배웠다.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 연구원 •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여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1.)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림피) / 14,500원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구?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성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찌리!”



• 어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들과 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러주고 있다. -조선일보
•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서정성 짙은 60편의 법문으로 동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고 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서점 예사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